

제4차 사회교육 심포지움
매스미디어와 사회교육

매스미디어와 사회교육

최정호/연세대 교수

매스미디어의 변혁과 사회교육

유재천/서강대 교수

매스미디어와 청소년

홍기형/중앙대 교수

매스미디어와 가족생활

김광역/서울대 교수

매스 미디어와 社會教育

崔 禎 鎬

(연세대 교수)

원래 주최측에서 저에게 주제발표를 하라고 위촉할 때 주신 제목은 “매스콤과 사회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제목을 매스콤이 아니라 “매스 미디어와 사회교육”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매스콤”이란 말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 자신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스콤”이란 말은 mass communication의 줄임말 같기도 하고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또는 그를 줄여서 “매스미디어”의 줄임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미디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콤”이라고만 해놓으면 그 어느 쪽을 가르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왜색영어 “마수 꼬미”를 밀수입해서 보급시킨 듯한 “매스콤”이란 말은 이제 어엿한 우리말의 시민권을 획득한 듯도 싶어 “요즈음 매스콤은 활기가 없다”는 등 “최근 대학생의 취직희망은 ‘매스콤사 지원이 가장 많아’하는 등의 시정의 일상어에서부터 “매스콤 발달사” 비교매스콤론“등 대학강좌명의 학술어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이고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매스콤”이란 말은 “저널리즘“, “언론“ 또는 그의 수단으로서의 “언론매체“ 예컨대 “신문·방송”등을 두루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방송”·“언론”하면 뜻도 분명하고 그의 자수나 음철수도 “매스콤”보다 오히려 적어 더 이상 간략하게 줄일 필요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새삼 뜻도 분명치 않고 자수나 음철수조차 간략하지도 않은 왜색영어의 약자를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하면 될 것을 “에스·엔·유”(SNU)라고 하는 도무지 간략하지 않은 줄임말을 쓰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영어의 “매스 미디어”란 개념에는 신문·방송과 같은 이른바 “언론”매

체 이외에 음반·영화와 같은 오락매체도 포함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신문·방송보다 더 오래된 “제 1세대 매스 미디어”로서의 서적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를 “신문·방송” 또는 “언론매체”라고 우리말로 고쳐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미디어란 말은 굳이 “대량전달매체”나 “대중매체”란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그냥 쓰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 한마디 해둔다면 “대중매체”란 번역말은 “대중의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말은 못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처럼 말 한마디를 가지고 까다롭게 구느냐고 핀잔을 하실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 좁은 소견으로는 기초학문분야나 특히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대부분의 학문에 있어서는 실인즉 “배운다” “학습을 한다”는 것은 그의 상당 부분이 따지고 보면 새로운 “말”을 배운다. 그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개념”을 학습한다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지식체계란 결국 우리들이 학습한 말의 총합, 우리들이 배운 개념의 연관체계라고 해도 좋을 줄 압니다. 따라서 제대로 안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모든 “말”들, 모든 “개념”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지식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 하나의 개념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못된다면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뤄진 지식체계도 또한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말을 배우는 것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릇 배운다, 가르친다는 것이 말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갓난아이는 엄마 품안에서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배우면서 이 세상의 지식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게 됩니다. “워드”(word-言語)를 배우는 것은 곧 “월드”(world=世界)를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갓난아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진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숨이 이른바 “사회화”(socialization)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 그 속에서 태어난 전통문화의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유산인 언어체계에 친숙해지고 그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보아서 크게 빛나간 말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제도적인 교육은 높은 교육열과 교육인구의 증가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에 투고해온 독자의 편지 중엔 그것을 그대로 실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글이 별로 없고, 대학졸업생들의 영어회화 실력은 향상되었다고 하나 영

어원전을 제대로 된 우리말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에 속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일부의 소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서도 제 나라의 말이나 글로 제대로 제 뜻을 펼 수가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자신에 못지 않게 그 사람들이 받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인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말이나 글을 보면 참으로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야말로 문제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대해서 까다롭게 굴어 본 까닭을 늘어놓아 보았습니다.

1. 신문·방송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매스 미디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매스 미디어의 그러한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의 전통적인 수단인 “말”이나 “글”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 말은 어떤 정보나 의미를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말이나 글, 또는 신문과 방송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지켜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기능, 곧 환경감시 기능, 또는 정보전달 기능입니다.

둘째는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을 연결시켜 뜻을 모으는 기능, 곧 대책협의 기능, 또는 정책형성 기능입니다.

셋째는 것처럼 환경에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축적된 사회적 지혜나 문화적 유산을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기능, 곧 사회화(socialization)기능, 또는 교육기능입니다.

이상 세 가지는 미국의 사회과학자 라스웰(Harold D. Lasswell)이 내린 커뮤니케이션의 고전적인 기능규정입니다만 이 밖에도 라스웰이 빠뜨린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넷째것은 사람들끼리 그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고달픈 삶을 달래 주고 즐겁게 해주는 기능, 곧 오락기능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말과 글을 알리고 소식을 전하고(정보전달기능), 따지고 의논하고(논평, 협의기능), 가르치고 깨우쳐 주고(교

육, 교화기능), 흥겨운 애기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도 합니다(오락기능).

그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의 근대적인 수단인 매스 미디어에도 예컨대 신문에는 뉴스란, 광고란이 있고(정보전달기능), 사설란·논평란이 있고(대책협의기능), 문화란·학예란이 있고(교육·교양기능), 스포츠란·퀴즈란(오락기능) 등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방송과 같은 매스 미디어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말”이나 사사로운 “글”이 쉽사리 해낼 수 없는 커다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보기들을 들면 다음과 같은 기능들입니다.

첫째 매스 미디어는 사람들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야가 장소에 의해서 제한되고, 인간의 경험이 직접적인 접촉의 세계에 국한되고 있던 두메산골에 어쩌다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매스 미디어가 들어와서 그걸 통해 사람들이 그때까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커다란 세계”가 갑자기 탁 트이게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들은 많은 회고담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통천의 정주영 소년이 그 시골 동네에 배달되는 유일한 구장집의 신문을 얻어 읽고 “근대예의 유희”를 느껴 농촌을 떠나도록 마음의 충동질을 당했다는 회고담 등이 그것입니다(아산 정주영 연설문집 p 19 및 p. 206).

이처럼 매스 미디어는 아직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고 지금 이곳의 삶보다 더 좋은 삶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그 다음엔 사람들에게 더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는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한 시야를 열어주고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을 눈뜨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곳으로 깊이 끌어 모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다같이 이미 익히 경험했던 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는 이처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정보를 전달해 주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그 사람들 사이에 작게는 공통된 “얘기꺼리”(화제)를 제공해 주어 대인적 상호관계를 촉진시켜 줄 수도 있고, 크게는 개인의 집단에의 귀속의식을 불러 일으켜 이른바 「우리의식」(we feeling)의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단의식, 우리의식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아시안 게임

에서 대중공탁구전의 TV중계를 통해서 화끈하게 몸으로 체험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 한편 매스 미디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집단 의식, 집단 감정, 집단 규범의 유지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건 악행이건 매스 미디어가 그를 보도한다는 것은 그 사회체계가 갖는 선·악에 대한 도덕규범을 널리, 그리고 인상깊게 보급시켜 주고 강화해 주는 기능을 갖습니다. 특히 어떤 부정사실이나 일탈행위가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폭로된다는 것은 형벌 이상의 제재(sanction) 효과를 갖는다는 것도 우리들은 최근 어떤 불행한 교직자의 자살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삼 깨닫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공표는 개별적 태도와 공중도덕 사이의 틈을 메꾸어 준다」는 말을 실감케 해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는 어떤 무명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유명한 인물로 만드는 이른바 사회적인 “지위부여기능”도 갖는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김가, 이가가 어느 날 신문에 나오거나 TV화면에 나오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돋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매스 미디어가 이처럼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처럼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회적·집단적으로 감화력을 갖는 「모범의 인격」을 창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교육적인 차원에서 매스 미디어가 노리는 구실은 특히 우리들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원래 그의 성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자인 시민이 나라의 통치과정에 여론을 통해서 스스로 참여 하겠다는 정치적 의사형성을 하는 일이고,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 나라의 통치과정을 널리 알려주는 정보유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과 정치의 돌아감에 대한 “앓”이 있어야 민주정치란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치적 의사(여론)형성과 통치과정에 대한 정보(보도)의 확산은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매스 미디어가 능히 해낼 수 있는 기능에 속합니다. 매스 미디어의 이 같은 순기능(eu-function)은 만일 매스 미디어가 다양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 기여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정치적 의사나 “선전”이나 “홍보”에만 봉사한다든지, 혹은 매스 미디어의 통치 과정에 관한 보도의 자유가 크게 제한을 받는다면 하는 경우에는 매스 미디어가 민주정치 아닌 독재정치

를 위해 이용되는 역기능(dys-fuction)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아니될 것입니다.

3. 한편 근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폭발적인 보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매
스 미디어는 그의 제 4 기능으로 거론되고 있는 오락의 미디어로서도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수행한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리 만큼 막강한 영향
력을 시민 생활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습관화 되어버린 매스 미디어에 대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접촉은 어떤
특별한 의도나 학습의 동기에서라기보다 그저 신문이 여기 배달되었기 때문에
들쳐 읽어보고 텔레비전 수상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켜 본다는 투의 무의도적
인 접촉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세대 매스 미디어인 텔레비전은 그의 영상적 감각적 유인력 때문에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오락적 기능을 갖는 미디어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밤마다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은 그 결과로서 동서
양·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시민생활의 여가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는 이미 가져왔다는 사실을 많은 조사통계들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
를 든다면 영화산업의 사양화와 영화관 객석수의 감소는 TV수상기 보급의 증
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연극무대나 콘서트홀처럼 직장이나 학교를 다녀오는 도시교통의 어
려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찾아가야 되는 공연예술의 향수, 그의 감상을 위해
서는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정신적인 집중과 학습을 강요하고 있는 이른바 “고
급문화”의 향수와는 달리 텔레비전이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즐기는 데엔 어
떠한 수고나 “죽고(足苦),” 어떠한 집중이나 학습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갖는 그 같은 시청자에의 영합성은 물론
그 프로그램의 질이나 수준에 주름살을 입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보다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송당국의 공명
심이나 경쟁원리는 자칫하면 전체사회의 문화 취향을 획일화·동조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른바 “대중문화”라는 표제밑에 제기되
고 있는 모든 논란은 실인즉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 미디어가 보급한 문화에 관
한 논란입니다.

그건 어떻든 매스 미디어가 시민의 여가생활 구조에 중추적인 구실을 하고
대중취향이나 “대중문화”형성에 지배적인 동원(agent)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특

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매스 미디어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매스 미디어의 광고 기능입니다.

프랑스의 “1985년 그룹”이 이미 오래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의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사람은 훌륭한 생산자로서만이 아니라 훌륭한 소비자로서도 교육받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Reflexions pour 1985). 그러나 훌륭한 소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매일 매일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의 홍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문명세계에 갑자기 미입한 야만인”처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지나친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제대로 감식하고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이용할 줄 아는 훌륭한 소비자가 되는 교육은 오늘날 거의가 그러한 상품과 용역의 대량판매에 이해관계를 갖는 광고에 위탁·의존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것은 매스 미디어가 사람들의 여가생활 구조를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아가서 사람들의 욕구구조조차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는 논의를 낳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것을 마시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스 미디어(광고)가 가르쳐 주는 것을 먹고 싶어지고, 마시고 싶어지고, 사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4. 매스 미디어는 이처럼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을 불러 이끄러주고, 어떤 주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주고, 집단 의식·집단 감정·집단 규범을 강화시켜 주고, 인격적인 감화의 모범을 창출하고,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치과정의 통찰을 도와 민주시민을 위한 정치교육을 할 수 있고, 오락을 제공해서 시민의 여가생활에서의 취향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새로운 상품과 기술과 용역을 이용하도록 소비자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모든 점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19세기말에서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구미제국에서 선구한 산업화·도시화에 뒤이은 이른바 “커뮤니케이션혁명”은 매스 미디어를 그야말로 공용과 같은 거대미디어로 키워 놓음으로 해서 그의 영향력을 더욱 막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사람들의 생활공간, 갈수록 서로 열키게 되는 현대의 인간관계와 국제관계는 시민의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매스 미디어의 눈과

귀와 입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에 거의 맹목이 되어버릴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보고 듣고 말해 줄 수 있는 자유권이란 근대 이후에는 인간의 기본권과 함께 치명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언론의 역사는 매스 미디어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려는 부정적(negative) 통제에 대한 투쟁의 역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말~20세기초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성취된 이후 매스 미디어에 대해서는 지난 세기까지의 부정적 통제 이외에 새로운, 또 다른 유형의 통제가 가해지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하는 부정적·소극적인 통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긍정적·적극적(positive) 통제입니다. 좋은 일이건, 궂은 일이건, 매스 미디어에 대해서 매스 미디어 외부의 권력이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통제임에 틀림없습니다(20세기 프랑스의 두 대표적인 문인의 대화에서 “만일 나에게 글을 쓰지 못하도록 누가 강요한다면 자살해 버리겠다”는 앙드레·지드의 말에 “만일 나에게 글을 쓰도록 누가 강요한다면 자살해 버리겠다”고 폴·발레리가 대답했다는 말은 언론의 소극적 통제와 적극적 통제, 부정적 통제와 긍정적 통제의 두 경우를 시위해 주는 흥미 있는 일화).

매스 미디어에 대한 소극적인 통제를 가한 것이 19세기까지의 전체 왕정이었다면 매스 미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하고 나선 것은 특히 20세기의 전체주의 정치체제입니다.

20세기의 정치와 언론을 특정 짓는 그러한 통제유형이 바로 20세기의 원년(1901년)에 저술한 소비에트 전체주의의 창시자 레닌의 두 논문(Iskra지에 1901년 기고한 논문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및 스위스 망명지에서 1901년 집필한 소책자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글에서 레닌이 신문(매스 미디어)에 대해서 “집단적 선전자이자 집단적 선동자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로서의 기능을 요구한 것은 바로 매스 미디어에 대해서 요구한 적극적 통제 의지의 효시가 되는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스 체제하에서의 또다른 전체주의가 역시 정부기구 안에 “선전 및 국민계몽성”(Ministerium fur Propaganda und Volksaufkarung)을 두어 모든 매스 미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강행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일반적인 사례로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권력 주

도하에 단시일내에 국가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오늘날 매스 미디어의 긍정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질서”의 수립을 둘러싼 논쟁에 있어서 제 3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소비에트 공산주의 국가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는 깊은 원인도 실은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매스 미디어가 거대미디어가 되고 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해 졌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은 매스 미디어부터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20세기의 또 다른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의 주력부대는 맨 먼저 신문사와 방송국부터 점령하는 것이 하나의 정석이 되었습니다.

매스 미디어를 지배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지배한다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지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모든 지배는 언어의 시작되고 언어의 지배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배가 곧 언어의 지배라 함은 다른 누구보다도 국권과 함께 국어를 빼앗겨본 역사를 가진 한국사람들이 가장 뼈아프게 체득한 진실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기간에 자행된 국어에 대한 전면적인 금압 이외에도 우리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덕국(德國)”이 “독일”로, “법국(法國)”이 “불란서”로 바뀌고 혹은 “에네르기”가 “에너지”로, “비타민”이 “바이타민”으로 바뀌는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정치적 지배나 문화적 지배의 변화를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백성”으로, 혹은 “서민”으로 부르느냐, “대중” 혹은 “민중”이라 일컫느냐, “시민” 혹은 “인민”으로 자칭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의 차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매스컴”이라는 밀수어에 이어 “가라오께”란 말이 그 실물과 함께 밀수입되어 한국말의 시민권을 얻고, 일왕(日王)을 여전히 “천황”이라 부르면서 2차대전을 다시 “대동아전쟁”이라 일컫는 호칭까지 출몰한다는 것은 한국방송공사가 TV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부지불식간에 일본의 국가와 일제의 “군함행진곡” 멜로디를 흘려보낸 아연한 사실과 함께(이것은 허구 아닌 사실입니다!) 우리 나

라 대일 무역의 적자폭 증가에 못지 않는 새로운 일본의 지배위협을 현실적인 것으로 실감케 한다고 해서 지나친 기우로만 들리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언어의 혼란은 우리 사회에 문화의 혼란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의 단적인 반영이라 해도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새 세대 매스 미디어가 퍼뜨리고 있는 무질서한 언어,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한 언어의 혼란이 해방직후부터 6.25전쟁의 전후기까지 오랜 동안 출판·인쇄 미디어를 지배했던 언어의 혼란과 함께 매우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교육이건 비제도적 교육이건, 혹은 학교교육이건 사회교육이건, 해방 후 한국교육의 가장 큰 결점은 한국사람이 한국말과 한국글로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실패한 데에 있지 않은가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교실에서의 대량교육, 대학입시 위주의 점수따기 경쟁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언어능력·문장실력이 길러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숲속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무리한 주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학교교육의 결점을 사회교육이 어떻게 해서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매스 미디어도 그러한 사회교육기관의 하나로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거대미디어로서 몇 사람의 손에 독과점화 되고 있는 매스 미디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회 교육적인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동기가 비록 아무리 좋은데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특정한 문화이념이나 정치이념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언론의 “적극적 통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부의 손에 있건 민간의 손에 있건 오늘날 “미디어”를 가진 쪽(신문사·방송사)의 힘은 지나치게 커진데 비해서 정작 “메시지”를 가진 쪽(언론인·문필가)의 힘은 너무 지나치게 미약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육을 관리하는 쪽(문교부·교육구청)의 힘은 지나치게 커진데 비해서 교육을 실천하는 쪽(일선교사·학교)의 힘은 지나치게 미약해진 실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미디어건 교육이건 지나치게 중앙집권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 하향적으로 다원화하고 분산화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메세지”를 가진 사람이, 교육의 행정관청에 대해서 학교의 일선교사가 스스로의 지위를 회복하고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언론과 교육의 하향적인 다원화와 분산화는 불가피한 요청이라 생각합니다.

매스 미디어에는 그러한 다원화와 분산화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한국이 그의 기술개발에 있어 세계역사에 선구했던 제 1 세대 매스 미디어인 책-신문이나 방송에 밀려 잊혀지고 있었던 매스 미디어로서의 “책”의 출판과 보급을 활성화 하는 길, 보다 많은 좋은 책을 쓰고, 보다 많은 좋은 책을 읽도록 하는 길이 그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나 유럽에 있어서나 책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소수의견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생각이 발표될 수 있는 가장 다원화되고 분산화된 매스 미디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은 한 나라의 언어를 아름답게 조리 있게 가꾸고 지키고 그것을 또 펴내는 가장 훌륭한 오랜 매스 미디어입니다. 위대한 계몽주의의 철학자 칸트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완전한 자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Kant:Was ist Aufklarung?).

책이야말로 사회교육을 위한 가장 훌륭한 매스 미디어임을 상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책은 비단 지식만을 전달하고 정서만을 함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은 사람을 민주적인 시민으로 길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에 있어서는 칸트가 “계몽주의”를 설명한 글에서 인용한 로마의 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의 격언이 예나 지금이나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aesar non est supra grammaticos”(황제도 문법 위에 설 수는 없다)는 바로 그 격언말입니다.